

꿈이 있는 '청정구역',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

학생들이 만든 '멀티 학습의 장' ... 온돌방 갖춘 책놀이터
기업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받아 '첨단도서관' 탈바꿈

귀신 나올 듯, 음산한 도서관은 가라!

"제가 책임을 맡고, '서포트'도 하지만 '안방마님'은 따로 있죠."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송곡여자고등학교(이하 송곡여고) 도서관의 이덕주 사서교사는 말을 아꼈다. 그 속내인 즉 송곡여고 도서관의 주인은 학생들이고, 이들만큼 이곳 시스템에 대해 잘 설명해줄 만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었다. 마침 이 교사가 기다리던 도서관의 단골손님들과 도서관사랑봉사단(이하 '서랑')의 단장이었던 3학년 이소영양이 도서관을 찾았다. 2학년 박성하양은 "옆에 있는 H여고의 도서관은 그저 책 대여점 수준이고, 공공도서관은 귀신나올 것처럼 음산한 데 비해 우리 학교 도서관만한 곳이 없다"고 자랑했다.

'학교도서관의 모범사례'로 종종 얘기되는 송곡여고 도서관은 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내실은 있지만 시설이 뒤떨어진다는 점에 아쉬움을 가져왔던 학생들은 지난해 SK-텔레콤에서 주최한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해피해피 新드림)에 응모했다. 총 3,000여 개 중, 고교가 지원을 했고, 그 중 송곡여고가 두 번째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됐다. 단지 운이 좋아서라고만 할 수 없었다. 선정 학교를 고르는 기간 동안 학생들은 열과 성을 다했다. 주축이 된 '서랑' 학생들은 겨울방학이었음에도 학교에 나와 '송곡여고 도서관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들고 학교 인근에서 홍보전을 펼쳤다.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 후 5,0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혜택을 받게 된 학생들은 주최측이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리모델링 사업체측에 "도서관에 온돌방형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해 4월 19일, 천장에 물이 새곤 하던 낡은 도서관은 온돌방이 깔린 '찜질방'까지 준비된 첨단(?)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도서관 지킴이 학생동아리 '서랑' 맹활약, '우리 없인 도서관 운영 어려울 거예요!'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추 역할을 했던 '서랑'은 '도서관 지킴이'로 통하는 도서반 동아리 학생들이었다. 지난 96년에 만들어져 현재 9기까지가 활동중이다. 이 교사는 "도서반 활동이 수행 평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 어느 누구보다 열의가 높다"고 칭찬했다. 이들은 도서관의 책이나 신문, 원문 정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독서토론이나 글쓰기를 하고, 도서관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그리고 지루하고 갑갑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관련 캠페인, 이벤트 프로그램 등도 기획, 진행한다. 인기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및 대중적 반향이 컸던 유명 핸드폰, 라면 CF를 패러디해 만든 '서랑 단원 모집공고' 영상물은 지난 도서관대회를 찾은 사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얻을 만큼 신선한 아이디어로 평가받았다.

약 100평 규모에 장서 약 만 오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은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로 북새통이다. 서가에서 책을 찾거나 대출을 하는 학생, 컴퓨터 앞에 앉아 정보검색을 하는 학생들 모습은 어느 도서관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한쪽에 마련된 온돌방의 풍경은 무척이나 낯설다. 아이들말로 '찜질방'이라 불리는 온돌방에 배를 깔고 누운 학생들은 소설책, 만화책 등을 읽으며 '깔깔' 웃어댄다. 이 학교엔 최소한 "답답하고 어둡고, 그렇잖아도 지겨운 책 냄새를 또 맡아야 하는" 도서관은 없다. 아이들은 점심을 먹자마자 부리나케 도서관으로 달려온다. 점심시간 학교식당의 혼잡을 대비해 11시부터 12시까지를 3학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를 1,2학년 점심시간으로 배치하지 않았다면

공간이 부족하던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에선 알아서들 침묵한다.

“도서관은 입시지옥과 상관없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곳 돼야”

예사롭지 않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엔 이 교사도 한몫 단단히 했다. “나는 도서관 주인이 아니다”고 자신의 공을 애써 감추던 그는 광고, 드라마를 패러디해 만든 ‘서랑’ 단원 모집 공고 동영상상을 보여주며 “다 재밌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관에 잘 안 오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죠. 수행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면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관 만큼은 입시지옥과 상관없는 청정구역이 돼야 합니다” 그저 책을 즐겁게 만나고, 놀고, 그걸 통해서 웃어보라는 의미로 만화책도 갖다 놓았다. 말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는 아이들이 도서관 활동에 열의를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이 ‘멀티 학습의 장’이 돼야 한다는 뜻에서 선생님들에게도 먼저 도움의 손길을 적극 내밀고 있다. 이 교사는 <수업을 도와드립니다. 퀴즈를 해주세요>란 제목의 안내문을 각 교과과목 선생님들에게 전달한다. “과제를 내주시면서 다양한 견해의 토론을 기대했는데 백과사전식 정보만 나열해서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교재연구를 하시다가 자료를 잘 못 구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토론수업을 위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예” 소리를 하게 되는 많은 교사들이 도서관을 찾아 해결책을 찾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 공간에서 일종의 독서치료라 부를 수 있는 수업이 실시됐다. 유명 그림책 《강아지똥》과 관련 DVD를 본 학생들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책 한 권 씩을 만들었다.

“강아지똥처럼 내가 사회에서 어떤 쓸모 있는 존재로 남는지 자각하고 자기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술, 독서치료, 문학 등 특별히 어떤 과목이라고 말하긴 그렇구요. 그 과목과 관련해서 필요한 다채로운 수업자료들이 준비돼 있어서 도서관에서 한층 입체적인 수업을 시도해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장면 시식권, 매점 물품 교환권 등 이색 ‘문화상품’

한편 이소영 양은 “선생님을 통해 ‘책의 저자가 학교에 오다’란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며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의 삶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로에 관한 고민 등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그동안 동화작가 정태선 씨, 시나리오 작가 심산 씨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저자들 혹은 특정 직업 종사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대화시간을 가졌다. 최근엔 많은 학생들이 책의 한 대목을 읽고 책 제목을 알아맞히는 게임인 ‘책 속 보물찾기’에 도전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 중이다. 페이지부터 힌트가 될 만한 정보는 다 가리고 실시하는 게임이라 결코 쉽지 않다는 게 대개 학생들의 반응이다. 1등에게 주어지는 상품은 문화상품권부터 동네 중국집 자장면 시식권, 매점



점심시간, 도서관에 있는 ‘온돌 찜질방’에서 각자 편한 자세로 책을 읽는 송곡여고 학생들.

물품 교환권 등 별게 다 있다. 그 중 몇몇 ‘이색 상품’은 주변 상인들이 스폰서를 자청한 것이다.

취재 당시 ‘서랑’ 학생들은 며칠 후 있을 축제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한 학생은 “책을 갖고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며 퀴즈를 준비할까, 헌책 베품시장을 해볼까 떠오르는 구상안이 한둘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바쁜 입시 준비에도 불구하고 안방 드나들 듯 도서관을 찾는 이소영 양은 “3년 동안 ‘서랑’ 활동을 하면서 사서교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됐다”며 “고교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은 모두 이 도서관에서 해본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이소영**

취재 김청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